

2014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Korean Background Speakers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and Part B)

Transcript

Familiarisation Text

진호: 또 시작이다. 지금은 받아 줄 기분이 아니거든. 그만해. 사실은 우리 아빠가 이민가제.

예슬: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거겠지. 사오정이다 오륙도다 해서 40대 50대 분들이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겠지.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Question 1

잔디: 안녕? 길수야! 어쩐일이야? 우리 동네까지 다 오고……

길수: 아~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 머리 좀 식히려구. 매일 공부만 하라고 낮이든 밤이든 지키고 계시니 집중이 되야 말이지. 엄마는 마치 죄수를 지키는 간수 같아. 결국 날 못 도망가게 할거야. 난 괜한 신경질만 느끼는 거 같아. 가끔 머리로 식혀줘야 공부도 능률이 나는 거 아니겠어?

잔디: 그래, 맞아. 우리 엄마도 둘째가라면 서러울걸. 잔소리가 보통이 아니셔. 대학입시가 얼마나 남았다고 태평이냐며 계속 닥달하신다면 내 고막이 터져 버릴거야.

길수: 부모님은 다 같으신가 보지? 이럴 땐 유유상종이란 말을 쓰는건가?

잔디: 글썸, 잘 모르겠네.

길수: 그런데 잔디야, 너 지난 speaking 시험 잘 봤어?

잔디: 연습은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전에서 좀 떨어졌어.

길수: 그러니? 애석하구나. 난 연습 때보다 좀더 실감나게 발표해 예상보단 성적이 좀 잘 나왔더라. 운이 좋은건지……

잔디: 운이라기보다 네가 더 열심히 연습한 결과일지도 몰라. 나도 다음엔 아주 많이 연습해 떨어지는 것까지 극복하도록 해야겠어.

길수: 어? 잔디야, 너 스마트폰 생겼네?

잔디: 응, 내가 엄마한테 사전이나 인터넷 정보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된다고 강조해 사주셨어.

길수: 너 사실 새로운 게임 더 다운 받으려고 사달라고 엄마한테 거짓말한거 아니야?

잔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공부 목적으로 사달라고 한것도 사실이야.

길수: 난 아직도 구형 핸드폰 사용하는데..... 아무리 졸라도 돈 없으시다고 아직 안 사주셔. 요즘은 친구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 어떨땐 나만 없는거 같아 좀 창피하기도하구.

잔디: 길수야, 너 여자 친구 생겼니? 지난번 다정하게 학교 앞에서 둘이 걸어가는거 봤는데.

길수: 아니야, 개는 그냥 친구야 너처럼.....

잔디: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길수: 사실, 난~ 그 친구한테 맘이 좀 있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대학갈 때 까지는 이성교제는 꿈도 못꾸게 하셔. 그러니 그냥 친구로 있다가 대학입학 후에나 데이트 신청해야 하지 않겠어?

잔디: 아무래도 여친 사귀려면 시간적으로 공부에 방해도 되고 할테니 그게 좋겠다. 그런데 사실 나도 근사한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하지만, 현실은 공부에 얽매여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시간도 없지 뭐.

길수: 그래, 우리 내년 대학에 멋지게 합격하여 더블 데이트 같이 하자. 아주 재미있을거 같애.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거야.

잔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길수: 나도~

잔디: 나와 얘기하니 스트레스 좀 날라갔니?

길수: 그럼, 머리 아픈게 싹~ 가셨다.

잔디: 너희 어머니 너 어디 갔나하고 걱정하시겠다. 빨리 가봐.

길수: 알았어. 가까운 동네니까 바람좀 쐬고 왔다고 그러지 뭐.

잔디: 잘가! 길수야. 참,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자~

길수: OK! Sounds good! 안녕~ 잔디야 ! 다음에 또 보자.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2, Text 1

여성 앵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바람직한 자녀 교육’에 대해 책을 편찬하신 김빛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김선생님의 생각을 여쭙 보겠습니다.

Mr.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3가지의 선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여성 앵커: 선물이요?

Mr.김: 네. 선물이요. 첫번째는 뭐니 뭐니해도 사랑이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 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긍정적이 되고, 야단만 맞고 자란 아이는 부정적이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가 있다면 올바른 자녀 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말 할 수 있지요.

여성 앵커: 아! 그렇군요!

Mr.김: 두번째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아이의 개성을 잘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모든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여성 앵커: 네. 맞아요.

Mr.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이에요. 아이들의 꿈을 위해 자녀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실행한다면, 아이들은 건강하고 책임감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여성 앵커: 그런데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때때로 아이들은 부모의 바람과는 다른 길로 가길 원할 때가 있어요.

Mr. 김: 그렇긴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살아온 세대의 가치관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대의 가치관은 다를 수 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커서 의사되라, 판사되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여성 앵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Mr.김: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그 아이들의 꿈을 막지는 않을 거예요.

여성 앵커: 결국에는, 부모들의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겠군요. 맞나요?

Mr.김: 네. 그렇지요. 부모들의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핍박받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성 앵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2, Text 2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듣고, 이렇게 방송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1년 전 이맘때쯤으로 기억됩니다. 퇴근 후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지하철 역사에서 대 여섯명의 고등학생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아이들이 추던 춤은 비보잉이었어요. 지하철 바닥이 차가웠던 것으로 봐서, 날씨가 제법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자기들끼리 한참을 웃고 즐기면서 말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 유난히 열정을 가지고 춤을 춘 아이를 기억합니다. 한 차례의 공연이 끝나고 본인의 이름은 박진용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더군요. 저는, 왜 이렇게 추운 지하철에서 춤을 추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지요. 학교를 비롯한 그 어느곳도 그들이 춤 연습할 장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박진용 학생의 그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동대문이나 강남 등지를 가면 그 곳에 연예인, 댄서, 배우 등을 지망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더군요. 물론, 대부분은 그냥 단순히 장래희망으로 끝이 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실제로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어른들은 그들을 단순히 ‘놀이 좋아하는 청소년’, 때로는 ‘학교에 적응 못하는 부적응 학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은 남과는 다른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거죠.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꿈과 장래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만을 공부라고 하지요. 학업을 위해 공부하기 보다, 가수나 배우의 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어른들은 공부하지 않는 청소년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단정짓습니다.